

지역 소식통



정읍시 '인구의 날 행사'

11일 성황리에 개최

정읍시가 지난 11일 내장산 문화광장 어린이축구장에서 첫 인구의 날 행사를 열어 시민 500여 명에게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물놀이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2026년 제1회 정읍시 인구의 날 행사'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자녀를 양육 100가정을 비롯 시민 500여명이 내장산문화광장 어린이축구장을 찾아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아이와 부모가 소통하며 추억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구름골 산림휴양테마

파크, 하반기 단계별 준공

'고창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가 전북자치도 사업을 통한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명품 관광지로서 거듭난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 사업지 내 방재와 재해 예방을 강화 위해 도에 건의한 유역 관리 사업이 최종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비 등 총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산림레포츠 단지과 자연휴양림 예정지 전반의 지형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테마파크가 완공되면 인접한 운곡삼사르습지의 생태 관광 생태계와 선운산, 고인돌 유적지 등 고창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이 하나로 묶이는 거대한 '생태·체험 관광 벨트'가 완성된다. 군은 머무르며 소비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선 9기 전 부서 속도감 있게”

부안군, 정부 추경 대응 · 신규사업 발굴 선제 준비 행정력 집중나서

권익현 군수, “확장재정 기조 맞춰 군민 체감형 정책 적극 발굴해야”

부안군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 차원의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현 부안군수는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증시 활성화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빠르면 오는 8~9월 제2회 추경 편성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 추경은 군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예산편성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전 부서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 지역소멸 대응, 기본사회 실현,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육성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탄한 정책과 신규사

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발굴한 사업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추경은 물론 내년도 국가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 협의 등 선제적 대응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민선 9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민생 군정,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 미래 성장동력 확충, 열린 행정이라는 네 가지 약속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체감형 100일 실행과제는 단순한 업무계획이 아니라 민선 9기 초반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과제다. 부서장들이 군정목표와 정책방향을 직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부안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심도 있게 실행과제를 작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새롭게 구성된 부안

군의회와의 협치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오는 15일 예정된 의원간담회와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군정에 관한 보고와 관련해 “새롭게 구성된 군의회와 민선 9기 군정 방향 및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협치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라며 “각 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상 질의와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해 보고 과정에서 혼선이나 누락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 9기 군정이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 추경과 국가 예산 확보, 100일 실행과제 추진, 군의회와의 소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 고창서 열전 펼쳐

제16회 고창북분자배 전국배드민턴대회 11~12일 성료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제16회 고창북분자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고창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과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며 배드민턴의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선보였다.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전국 동호인들이 하나 되는 생활체육 축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푸른 녹음이 짙어가는 한여름, 대한민국 대표 북분자의 고장 고창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지역의 매력이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수단과 가족들은 경기와 함께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관



광자원을 접하며, 지역의 매력을 경험했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하며 지역에도 활력을 더했다.

고창군은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했으며, 원활한 경기 진행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수, 관내 주요 해수욕장 현장 점검

본격 휴가철 맞아... 안전관리 실태 확인 · 안전요원 노고 격려 등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1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주요 해수욕장을 방문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권익현 군수는 먼저 각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인명구조 장비와 응급 구호 장비 비치 상태, 부표설치 및 위험구역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상 변화가 급격

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시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위험요인 발생 시 신속한 입수 통제와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안전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태인 원거산마을에 온 청년 농부 “환영합니다”

청년 귀농인 최문익 씨 위한 환영회 개최... 주민들 “새 식구 정착 함께 정성껏 돕겠다”

정읍시 태인면 원거산마을 주민들이 지난 10일 새로 정착한 청년 귀농인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영농과 마을 정착을 돕기로 했다.

원거산마을회(이장 김성자)는 이날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귀농인 최문익(40) 씨를 위한 ‘귀농·귀촌인 마을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가 추진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고 따뜻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주민 화합 사업이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정읍시 태인면으로 전입했다. 귀농 후 정부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영농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재는 ‘귀농귀촌 청년 교류원정대’의 원정대장으로 활동하며 도시 청년과 농촌을 연결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최 씨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 농사와 농촌 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공유했다. 최 씨도 원거산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자 이장은 “인사성이 바르고 착



정읍시 태인면 원거산마을 주민들이 지난 10일 새로 정착한 청년 귀농인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영농과 마을 정착을 돕기로 했다.

착한 청년 농부가 마을의 새 식구가 돼 동네 전체에 생기가 돌고 기쁘다”며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낌없이 도울 테니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정성껏 돕겠다”고 말했다.

최문익 씨는 “이웃 주민들께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마을의 막둥이로서 뜻

은일에 앞장서고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발휘해 원거산마을과 정읍시에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시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연스러운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49건 상담

28건 현장서 상담 통해 해결

정읍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운영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시민 고충 민원 49건을 상담하고 28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이날 상담받은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총 49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가운데 28건은 현장 상담을 통해 해결했으며, 시간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21건은 심층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시청에 마련한 상담장뿐만 아

니라 생고을시장 고객센터에서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민생 현장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위한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시가 사전에 발굴해 연계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상담을 제공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학수 시장은 상담장을 찾아 상담조사관들을 격려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